제130호 (1975年 6月20日 文公部登錄 라― 1914號) 韓 國 生 藥 報 (월간) 1988年 10月 20日 【2】

교양시리즈

잔치가 끝난뒤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열렸고 또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의 예술관계 행사가 있었고 국제학술회의도 열렸다. 그리고 국제펜대회도 열렸다. 8월하순부터 연이어 각종 행사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중요보도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서울 전체가 갖가지 문화행사의 잔치로 온통 들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동구의 높은 예술성을 「의외」로 받아들인 것은

이번 각종 행사를 통해서 특기할만한 현상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동구권에서의 대대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볼쇼이 소속 무용수들이 참여했다고 선전된 발레공연, 「모스크바필하모니」의 공연, 한국계 오페라 가수의 독창회 등을 보여준 소련 예술인들의 공연은 특별히 화제를 모았다. 영어 통역을 대동하고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말이 서울에서 울리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말로 말하련다」로 운을 떼면서 소련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강조하고 문학을 통한 우의를 [illegible] 소련 작가동맹 제1서기의 펜대회에서의 짤막한 연설도 인상적이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유행어가 빈말이 아님을 실감시켜주는 사건들이었다.

동구권 예술공연의 관객 또는 청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수준높은 예술성이었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투의 감탄이 대부분이었다. 신문사에서 주최했다는 점에서 신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주도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인 반응이었음은 명백하다. 또 긍정적인 반응이 유보감이나 주저없이 표명되었다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쾌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편 뒤집어보면 높은 예술성에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이념이나 위로부터의 통제가 예술을 규제하고 있다는 동구권 예술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술성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의외로운 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은 동구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것이었다고 할수밖에 없다.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보편언어를 매체로 한 예술은 연극이나 문학보다 상이(相異)한 문화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쉽게 한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기본성격을 같이하는 한 그 세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념이 큰 장애요소가 될 리 없는 것이다.

대개 편협한 고정관념은 좁은 시야와 자기중심주의가 어울려 생겨나는 것이다. 세상을 넓게 있는 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좁은 자기중심주의가 만들어내는 허상(虛像)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건전한 현실감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서간의 활발한 교류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다고 새삼 확인하게 된다.

타인의 이해는 곧 우리 자신의 이해

동구권 예술공연을 일회적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동구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 시인 예프투센코의 내한과 그의 즉흥연설 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낳았던 위대한 러시아문학이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혁명 이후 이렇다 할 대작을 낳지 못했든가, 솔로호프는 어용작가란 규하는 투의 일방적이고 격화된 비판이 겨우 들릴 뿐이다.

펜대회에 참가한 러시아문학을 가르치는 미국 대학의 교수는 현재 소련에서 30년대의 회고록이 많이 간행되고 있으며 한때 금지되었던 조지 오웰 같은 작가들도 많이 읽히는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또 1910년대의 미래파 시인들, 또 상징주의 시인들의 작품들도 리바이벌 기운을 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적절한 세계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놀랄만한 속도로 좁아져 가고 있는 세계에서 타인의 이해는 곧 우리 자신의 이해로 연결될 것이다.

동구권 예술공연이 촉발한 감탄과 흥분은 이념을 넘어선 예술의 고유한 성질의 확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성의 확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념을 넘어서 동서의 관중이나 청중들이 확인할 수 있는 [illegible]

일시적이요 일회적인 전시효과가 되선않돼

◇… 개방의 필요성과 편협한 시각으로부터의 탈피, …◇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각종문…◇
◇…화행사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비록 소수 관중이나…◇
◇…청중에게만 열려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충격…◇
◇…과 감명의 여파는 확산되기 마련이어서… …◇
◇… 〈유종호/이화여대 교수〉 …◇

[illegible] 「풍년 거지 더 서럽다」 [illegible]

[illegible] 열려 있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충격과 감명의 여파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illegible]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이 너무 참혹했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면에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수많은 난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화요 도시화였음은 근래에 분출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과객에게도 융숭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손님을 후대하려는 심정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도 못들을 것이 뻔한데 과대한 후대로 매일처럼 성찬 초대를 일삼는 것도 보기 좋은 일이 아니었다. 벼락부자가 돈자랑 한다는 측면이 전반적으로 돋보였다. 우리도 이쯤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풍년 거지 더 서럽다」고 뒷공론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최대의 홍보는 사회의 착실한 민주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밖의 어떠한 편법이나 잔꾀도 필경은 일시적이요 일회적인 전시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連載

栽培教室

88新規會員을 爲하여

도라지 (桔 梗)

1、性 狀

○生藥名：桔梗 Platycodi Radix

○効用：祛痰、排膿作用이 있다。해소、氣管肢炎에 쓰인다。

山과 들에 自生 또는 재배되고 있는 여러해(多年草) 살이 풀이다。꽃은 生花로서 觀賞하고 뿌리는 食用과 藥用으로 이용되고 있다。키는 60~90㎝ 자라며 잎은 어겨 붙었고 얼핏보면 잎자루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잎의 끝은 긴 달걀꼴 또는 넓은 披針形으로서 잎가에는 톱니가 있다。7~8월경 줄기끝에 자색 또는 흰색의 아름다운 鍾形의 꽃이 핀다。씨꼬투리는 윗쪽에는 다섯갈래로 쪼개졌으며 結實期에는 자연히 구멍이 커져서 움직이며 씨앗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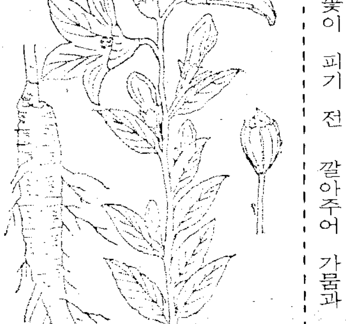
2、栽培法

①栽培適地

性質이 매우 강한 작물이므로 기후와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토질은 腐植質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땅이 좋지만 植質壤土나 砂質壤土에 재배하면 優良品을 생산할 수 있다。粘土質 물빠짐이 나쁜 땅에서 재배하게 되면 뿌리가 많이 썩게 된다。

②採種

길경은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속에서 自家授粉을 한다。그후 비로소 自然開花를 하게 된다。그러기 때문에 어버이의 性狀形質을 가진 種子를 얻을 수 있다。만약에 새로운 品種을 얻고자 개량할 때에는 品種을 交配한다。[illegible]



桔梗

[illegible] 때에는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터쳐서 他花受粉을 한다。採種한 種子의 發芽能力은 대개 1년 내외이며 지나치게 건조하였거나 播種期가 늦어지면 發芽率이 좋지 않다。[illegible] 莖葉과 함께 베어서 [illegible] 陽乾한 후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저장한다。[illegible] 꾸로 숙이면 씨꼬투리가 벌어져 있어 씨앗이 쏟아진다。

③繁殖

도라지 繁殖은 實生法、分株法、根伏法 등으로 한다。[illegible]

㈎直播法：[illegible]

[illegible] 생육도 좋지않다。한편 본밭에 直播할 때 4~6월의 건조기를 고려하여 늦가을에 밑거름을 넣고 2~3회 갈아서 越冬한 후 두둑을 짓고 씨를 그대로 두면 發芽發育이 잘 된다。[illegible] 南部지방에서는 가을에 [illegible] 토지이용상으로 볼 때 直播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특히 桔梗은 半陰地를 좋아하는 작물이므로 果樹園、뽕밭 또는 산림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10a당 播種量은 5~7ℓ 정도이다。

㈏育苗移植法：苗床은 3월 하순경에 適濕한 砂質壤土를 선택하여 10a에 대하여 0·5~0·6a 정도의 面積에다 잘 썩은 두엄、닭똥、草木灰 등을 3·3㎡당 8㎏ 뿌리고 넓이 90~1백20㎝의 두둑을 짓고 흙덩이 없이 잘 고른 후 씨뿌리기 전에 種子를 24시간 浸水處理하였다가 撒播로 뿌리거나 9~12㎝의 간격으로 골을 치고 줄뿌림을 한다。씨뿌림은 條播를 하는 것이 건실한 모를 얻을 수 있고 관리에 편리하다。[illegible]

[illegible]

④定植

[illegible]를 摘除하여 충실한 모를 기를 것이다。

定植할 시기는 가을 10월 하순~11월 상순경에 하는 것이 좋고、봄에는 3월하순~4월 상순에 하는 것이 좋다。추운 지방에서는 늦가을에 모를 파서 病害虫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본밭에 移植하는데 겨울동안 모를 속에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옮겨심는다。본밭은 깊이 갈아서 밑거름으로 두엄 1,000~1,200㎏、깻묵 60㎏、草木灰 20㎏、過石 20㎏ 정도를 施用하여 흙을 고른 다음 넓이 1백20~1백50㎝의 두둑을 짓고、이랑 사이 30㎝ 내외로 골을 치고 포기 사이 12~15㎝로 심는다。한편 심는 거리는 栽培의 목적에 따라 즉 藥用、食用、觀賞用切花 등 [illegible]年數、土質의 肥瘠등에 따라 다소 달리할 수 있다。심는 방법은 대개 심을 골을 파고 깊이 [illegible] 두껍게 덮고 [illegible] 때는 苗頭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얕게 덮어준다。

⑤一般管理

봄에 싹이 트면 수시로 中耕 除草를 할것이며、莖葉이 30㎝정도 자라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북돋아 주며、꽃봉오리가 맺게되면 摘除하여 뿌리의 發育을 이롭게 할 것이다。

2、收穫·調製

播種하여 藥材로서 수확할 것은 대개 2~3년째 가을에 캘것이며 食用으로서는 一定한 시기를 두지 않고 수시로 需要用途에 따라서 수확해서 팔 것이다。[illegible] 로 까든지 하여 말린 것을 白桔梗(백도라지)이라 하고 그대로 말린것을 皮桔梗이라 부른다。10a 當 收量은 [illegible] 2年根으로서 生根 800㎏ [illegible] 2백~2백40㎏을 얻게 된다。